

#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23, 페르시아와 그리스 분쟁 및 페르시아의 종말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3,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갈등과 페르시아의 종말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은 작은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세계 사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의 이러한 전쟁은 문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서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리우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는데, 이는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거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우스를 떠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면에서 그가 가장 성공적인 페르시아 왕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우스는 조직의 천재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페르시아 왕들이 따랐던 총독 행정 체계를 창안한 사람은 다리우스였습니다.

즉, 그는 각 satrapy에 직위 체계를 만들어 satrapy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왕좌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로열티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왕실 세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총독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왕실 세리를 창설했으며, 이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수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페르시아 왕좌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행정 시스템이 남은 기간 동안 제국을 섬길 것이라는 점에서 Tiglath-Pileser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거대한 간선 도로를 만들었고, 이 간선 도로, 이 광범위한 도로 시스템은 수사에서 사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Susa를 찾고 싶다면 여기 Susa가 있습니다.

여기 수사에서 드로아와 사데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페르시아의 왕도를 일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왕도는 1,600마일이 넘는 길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도로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페르시아제국을 통일하는 이 간선도로에 111개의 주둔지를 두었고, 여기에 군인과 말이 배치되어 동서를 통일하는 페르시아제국의 생명동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Tiglath-Pileser와 같은 훌륭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화폐를 실제로 대중화하고, 발명하고, 대중화시킨 왕이라는 사실도 교회 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된 최초의 동전은 아시리아 왕 사르곤의 통치 기간 동안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의식용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주화를 발명하는 일은 다리우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데릭 DARIC을 만들었고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금화였고, 그는 시글로스(siglos)라고 불리는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글로스는 고대 셈족 용어인 셰켈의 영향을 받은 용어입니다.

셰켈과 시글로스는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는 그의 이름을 따서 데릭, 은화, 시글로스로 명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류 역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동전이 이제 무게를 달는 식품이나 금속 물건이 아닌 화폐 수단이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페르시아 왕들보다 발자국이 더 컸다고 덧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헐리우드와 고전학자들의 신화에서 다리우스는 어두운 색으로 그려지지만 그는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다음에는 에스라서 4장 6절의 아하수에로인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세르크세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물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위에 오르자마자 흔히 일어나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반조라스트라고 사제들 중 다수가 이 순간 반란을 선택했기 때문에 크세르크세스는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 종교 체계를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숭배에 두었습니다.

이집트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바빌론은 482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총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성벽을 파괴하고 신전과 요새를 파괴했으며, 높이가 18피트이고 무게가 1,800파운드에 달하는 바알의 금상을 녹였으며, 왕위에서 바빌론 왕이라는 칭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이후의 페르시아 왕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페르시아 통치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군사 전투가 연이어 일어나는 군사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결국 그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좋은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자신의 군대가 170만 명의 군인, 8만 명의 기병, 2만 명의 낙타 또는 전차를 몰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침공군은 50,000~10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리스인들은 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완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어 자료를 허를 맞대고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가 침공했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커서를 움직여 이 정보 중 일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군대를 그리스로 데려왔을 때, 이 그래프에서 땅과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군대를 그리스로 데려왔을 때, 그는 분명히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그의 제국에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아테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맙소사. 따라서 그의 군대는 그리스인들이 성공하기에는 너무 큼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물론 그들은 그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그룹에게 이곳 테르모필레 고개를 지키는 임무를 맡깁니다. 고개 폭이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다. 전설에 따르면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소식통을 통해 이 스파르타 전사들이 약 천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통로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이 힘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분명히 그것을 막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할리우드에는 Thermopylae의 용감한 홀딩 액션에 대한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를 안다면 그 안에 로맨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나이가 많은 스파르타 여성들이 헐벗은 옷을 입고 살찐 스파르타 군인들과 동행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전투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아테네를 구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전멸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할리우드에는 그 중 하나가 저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행동에 대한 소식을 스파르타에 다시 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있는 스파르타 군인 한 명을 구하고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응, 헐리우드.

글쎄요, 문제의 진실은 Thermopylae에서 그들이 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은 남쪽으로 진군한다. 아테네는 약탈당하고 불태워진다.

실제로 홀딩 액션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아테네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 함대가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 살라미스라는 이름 없는 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내 수업 노트에 살라미스 전투에 대한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살라미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테네 함대는 아테네를 떠나 살라미스라고 불리게 된 이 좁은 수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그들의 배를 이 지역 안에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육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실제로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해군에 가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테네인들을 가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실수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페르시아인들은 해군을 여기에 남겨 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이 지역 내부의 항구 안으로 배를 가져갔습니다. 페르시아 선박은 더 크고 조종하기가 더 어려웠지만 그리스 선박은 더 작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바다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함대를 압도하고 페르시아 함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함대가 손실되면서 페르시아인들은 군사적 상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는 가난한 나라다.

그것은 심지어 자신의 인구를 먹일 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배들에 실려 운반된 곡물을 통해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페르시아인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마라톤이 잉크를 모두 얻었지만 서부를 구한 실제 전투는 살라미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철수했다.

그리스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행동은 이번 침공에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패배로... 글썄, 그 전투는 480년에 일어났습니다.

1943년이 독일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올해는 페르시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주요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맹인 카르타고인들은 히메라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시도는 영구적으로 방해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육지와 해군이 패배하면서 전투는 이오니아 해안으로 옮겨갔고, 479년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포로로 분열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이 일반적인 기간 동안 40,000~50,000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이오니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49년... 479년이 끝났을 때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페르시아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그리스를 제대로 정복하려는 페르시아의 시도가 끝났고, 따라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노력을 불태우기보다는 건설에 쏟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동쪽과 서쪽 사이의 1라운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라운드라고 말하는 이유는 동쪽과 서쪽의 전투에서 2라운드가 알렉산더 대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동쪽으로 전투를 벌이고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후의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나는 결국...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의 칼레 평화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의 메모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완벽하게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닌 그리스인. 본질적으로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긴 기간을 줄이기 위해 그리스 분열에 맞서는 페르시아의 금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해를 줄이기 위해, 이것을 관리 가능한 것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조기 멸망에서 구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의 분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은 유일한 것은 페르시아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아스 조약 이후, 페르시아인들이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들은 수세기 동안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전쟁이 그리스의 대의를 사로잡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 금을 사고 사용하여 그리스 정치 실체의 힘을 사고 다른 정치 실체와 전투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을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부패해지는 반면, 그리스 분열에 맞서는 것은 페르시아의 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페르시아 왕들의 남은 이야기를 안내하지 않고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동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 인구 형태의 승리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페르시아와의 성전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가 약하고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군, 스파르타군, 코린트군, 마케도니아군 등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보다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페르시아 제국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패배할 수단을 갖고 페르시아를 패배시킬 기회를 얻은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창설했고 그들은 이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이곳 그라니쿠스 강에서 그들은 최초로 페르시아 군대를 만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심각하게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라니코스의 알렉산더 군대는 단순히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면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금에 쫓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대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남쪽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 해방자로 영접받고 신격화된 뒤 그리스에 이어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을 파괴하려면 두 번의 전투만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기 이시스에서, 다른 하나는 여기 가우가멜라에서요.

두 전투 모두 치열한 전투입니다. 두 전투 모두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될 수 있었지만 두 전투 모두 마케도니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이후,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군대에 의해 암살되었고, 알렉산더가 키루스 대왕의 역사적인 영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행진합니다. 알렉산더가 가진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군사 천재였지만 알렉산더의 성공은 마케도니아 군대의 우월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전투, 즉 그라니쿠스(Granicus), 이시스(Isis), 가우가멜라(Gaugamela)는 모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상황을 바꿔놓은 것은 그가 물류 분야의 천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병참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군대가 덜 정교한 적들보다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병참 기술을 숙달한 능력 덕분에 군대를

수천 마일에 걸쳐 이동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집트로 군대를 이동시킬 때, 그는 이곳 앞바다에 있는 해군을 통해 군대를 공급했고, 그 해군은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를 메소포타미아로 이동시켰을 때, 그는 배를 롤러에 실어 해군 함선을 롤러에 실어 지형을 가로질러 굴러가는 방식으로 해군의 일부를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해군을 통해 군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 그를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그의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가 승리, 승리, 여러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코스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우리는 실제로 신약 배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거의 모든 정복자들이 그랬듯이 단순히 침략하여 노새 열차를 빼앗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금과 은을 실어 나르는 노새 열차는 너무 커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마케도니아로 가져오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그곳의 왕좌에 앉아 사치스럽게 죽는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서만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받은 것 같습니다. 죽음은 알렉산더에게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하는 동안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의 특정 핵심 인물들처럼 알렉산더도 평화롭게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기고 바벨론으로 돌아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에게는 전쟁과 금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사도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속한 지역인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가야의 문화를 동양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수십 개 건설했고, 이 지역 전체에 마케도니아 군인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뿌리를 둔 섬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이 섬들은 궁극적으로 이곳의 훨씬 더 많은 인구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헬레니즘, 동쪽으로 갈수록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레니즘은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이 동방을 지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의 병사들, 특히 장군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아나톨리아를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헬레니즘 문화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인이지만 알렉산더의 장군이 이끄는 후계 국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진정한 승리는 로마 문화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세계를 헬레니즘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공통 언어, 코이네 그리스어를 부여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에 공통 언어를 부여하려고 노력했고, 공통 문화를 부여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것에 공통 종교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세계를 헬레니즘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고대 이곳의 이 세계는 여러 면에서 헬레니즘이 승리한 세계였지만, 다른 면에서는 동서간의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원주민 셈족 유대인과 일부 헬레니즘 유대인들이 로마에 전쟁을 선포했고, 동서양의 전쟁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반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주제를 떠날 때 내 모습으로는 알렉산더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세계의 일부를 헬레니즘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부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는 동서양 사이에 긴장감을 갖게 된다. 이슬람 세계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에도 고대 중동 왕국의 후계 국가들 사이에서 동서양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슬람 세계는 헬레니즘화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임자의 고대 세계를 영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렉산더와 그의 세계 사이의 갈등, 로마와 그 세계 사이의 갈등보다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서양 간의 갈등의 지각판이

동일한 동서양을 따라 그려져 있습니다. 셈족 방언이 아랍어 형태로 지배하고, 셈족 문화가 이슬람 세계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더와 그의 전임자들이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동서양의 갈등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구약을 배경으로 한 성경의 세계를 끝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약의 배경에 속하지만 알렉산더가 중심 인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중동에서 헬레니즘 세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헬레니즘을 동양에 가져오려고 노력했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우리에게 서양과 동양의 갈등의 유산을 남긴 사람으로서 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배경의 놀라운 세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매료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자료, 주석, 훌륭한 책, 현재 수천 권의 책에 있는 훌륭한 역사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치지 않을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를 가르쳐 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2018년에는 차세대 태블릿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의 데이터를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흥미롭고 놀라운 배경의 세계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지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까지 정보 검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3,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갈등과 페르시아의 종말입니다.